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1월 7일(금)  
..(윤력 9월 18일)..  
Пятница  
7 ноября 2025 г.  
№ 43 (1216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10일은 러시아에서 내무부 직원(경찰관)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사할린 양돈단지 화재, 약 1,500마리 돼지 폐사

지난 11월 5일(수) 저녁 사할린 아니아 지역 타라나이 마을에 위치한 '메르시-아그로'회사 양돈단지의 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500마리의 돼지가 소실됐다.

화재가 밤 22시 22분에야 진화된 가운데 현장에 소방관 17명과 소방차 4대가 투입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진화로 다른 건물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에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지사, 안톤 자이체브 주정부 부총재와 스베틀라나 쉬웨츠 아니아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6일 전문가들은 피해 규모를 평가하고 폐사한 동물들을 처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폐사한 동물 중에는 번식용 암컷 돼지 460마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돈 단지를 복구하는 데는 약 9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사할린주정부, 3년간 예산안 두마에 제출

사할린주 정부가 2026년 예산안과 2027년 - 2028년 계획기간의 예산안을 사할린 주 두마에 제출했다. 주 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예산안 검토에 행정부 각 기관들과 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지역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주요 항목들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총재는 "사할린 지역의 예산안이 어려운 여건 속에 편성되었다. 대외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비우호국가들의 제재의 압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거시경제의 전망을 기반으로 균형 있고, 책임감 있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전처럼 예산은 사회적 방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지출의 절반이 사회적 분야에 배정되었다. 우리는 저소득층과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자와 그 가족에게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술적인 개발과 향후 지역 경제성장을 보장할 제반시설 구축 및 사회적 분야의 개선 기획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6년 사할린주 예산 지출액은 2,176억 루블리에 달한다. 사할린주 재무부 장관 올가 로파티나가 지적하듯이 향후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작업이 아직 남아있으며 "의회는 2,655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연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향후 3년간 우리 지역 살림살이의 재정계획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과제로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의 복지는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 예산안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사할린주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 주두마에서 2차례 심의할 예정이다.

(주정부 자료에서)

## 주민과 기업에 편의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가에선 곧 대형 화물차 떠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투자사업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 여름에는 대형 화물운송 차량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우회하여 통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을 돌아가는 서부 우회도로 1단계가 건설되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사할린의 기업들과 담당 기관들에게는 새로운 운송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업무가 남아있다.

서부 우회도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코르사코브와 흠스크, 오히로 빠져나가는 3개의 핵심적인 연방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서부 우회도로 개통으로 트럭들이 도심에서 벗어나며,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아스팔트의 수명이 연장되며, 공기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에 8.3km 도로건설의 1단계가 완공되어 2027년에는 서부 우회도로를 통해 하루에 약 850대의 화물차량들이 통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현재 대부분의 화물운송 차량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통과해 코르사코브와 흠스크 항구, 북쪽 고속도로로 이동하고 있다. 서부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도심을 돌러가게 되고, 이를 통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교통체증이 완화되며, 공기의 질도 개선될 것이고, 기업들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서부 우회도로에 창고 시설들

이 건설되어 하역을 위해 대형 트레일러를 도심으로 보낼 필요가 없고, 교통체증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러나 향후 교통 변동의 체계를 미리 구축하여 물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화물운송 체계로 주 중심의 북쪽에 위치한 사할린 농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 우회도로에 인접한 부근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건설될 예정으로 2026년에 1단계가 완공되며, 이 물류센터에 A급 및 B급 창고시설과 도매유통센터가 포함된다. 40헥타르의 복합 단지는 모든 현대식 물류 및 기업 창고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화재 시 자동소화시스템과 하이베이(High Bay)시스템(고층 랙 보관: 창고의 수납 용량 극대화, 자동화된 장비 결합, 입출고의 효율성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투자위원회의 참석자들은 다른 일련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검토하고, 2025년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사할린주의 중소기업들이 주정부의 지원으로 국제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한 가운데 공급된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6백만 달러에 달했고, 물품목록에는 해산물, 음료,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등 기타 물품과 관광서비스가 포함되었다.

사할린 기업지원재단의 파벨 코노넨코 회

장은 "올해 국내 17개 행정자치단체의 중소기업들이 하얼빈과 칭다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해 기후포럼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4개의 국제 전람회 참가했다. 9개의 기업을 위해서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베트남, 아랍에미라트로부터 협력 기업을 우리는 찾아냈고, 13개 기업들을 위해서는 외국어로 사업제안서를 준비하기도 했다. 모든 기업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생겨 재단의 전문가들은 사업을 상담하며, 사업 개발을 위한 추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위원회에서는 기업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를 결합한 새로운 국내 하이브리드 소매 플랫폼을 소개했다. 상품 목록과 물품의 상표를 제공하는 쇼핑몰과는 별도로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거래를 진행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사이트에서 고객들이 자신의 도시를 선택하면 매장 목록들이 나타나는데 이 매장을 어디든 들어가 화면으로 상점들을 둘러보며, 실 판매자에게서 온라인 상담을 받고, 협상하여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고객의 편리한 시간에 배송 예약을 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이 집을 나서지 않고도 직접 매장을 둘러볼 수 있게 되는 형태를 소개했다.

새고려신문

##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아이디어를 현실로, 열정으로 가꾸는 사할린의 비즈니스 풍경: 신 올라 마케팅 전문가

## "참가자들이 영감을 받고 새로운 지식과 인연을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사할린 지역 비즈니스와 전시-박람회 행사의 현장에서 '올가 신'이라는 이름은 이제 낯설지 않다. 개인 기업인으로 등록된 그녀는 아이디어를 현실의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어내는 지역 행사 운영자이자, '나의(마이) 비즈니스' 센터의 공식 협력자이다. 1986년 사할린 코르사코브에서 태어난 그녀는 국가 기관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꿈꿨지만, 그 열정은 마케팅과 행사 기획이라는 또 다른 길에서 터져 나왔다.

그녀의 작업에서 교육 및 전시-박람회 프로젝트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참가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과 혜택을 얻을 때 가장 기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올가가 기획하는 행사는 단순한 정보의 장이 아닌, 기업인들이 자신을 알리고,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으로서 2주 전에 사할린 기업인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박람회를 열고, 지금은 12월에 또 하나의 전시를 준비 중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과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그녀는 끊임없이 공부한다. 사할린국립대에서 국가 및 지역 자치 관리 전공에 이어 마케팅, 사이버 보안을 공부했고, 현재는 인공지능을 마케팅과 행사에 적용하기 위한 탐구를 한다. "정기적으로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동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의 여정은 공직에서 시작됐다. "이미 대학에서 사할린주 수산업 관리국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계속 일했죠. 당시 젊었던 저는 주어진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변해 필요없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라고 했다. 5년간의 공직 생활 후,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사할린 에너지'회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출산으로 육아휴가에 들어갔다. 그 시기,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당시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으로 복귀하기보다 창업을 해보기로 한 그녀는 어린이들을 위한 소프트 스킵(협상, 프레젠테이션, 리더십 등) 교육센터를 운영했다. 자신의 아이들을 포함해 요즘 아이들이 실제 대화보다 문자에 더 익숙한 것을 보며, 그들의 소통능력과 사고력을 키워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그녀는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 분야에 대한 깊은 흥미와 재능을 발견했다.

그녀의 노하우는 주변 동료 사업가들에게도 퍼져 나갔고, 결국 '마이 비즈니스' 센터의 공식 파트너로



초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녀는 자영업자들과 소기업 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힘썼다. "자영업자는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실현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가 필요하죠."라며 그녀가 60명의 자영업자 그룹을 4개월간 지도했을 때, 그룹의 25%가 그동안 고객 유치에서 78%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결과였습니다. 특히 교육 및 뷰티 분야에서 홍보가 가장 어려웠죠."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가족은 가장 큰 가치, 뿌리에 대한 기억은 소중한 자산이다. 올가는 슬하에 큰아들 미하일(19세), 딸 웨로니카(16세), 아들 다니엘(8세), 그리고 막내딸 아멜리아(9개월)를 두고 있고, 네 아이의 엄마로

서 그녀에게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다. "여가 시간은 오로지 가족만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여가시간을 아이들과 공원을 산책하거나, 자연 속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함께 미래를 꿈꾸며 보낸다. "아이들과는 정말 믿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애들 무슨 일이든 저에게 털어놓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존중과 사랑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저는 성공한 여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 아내, 주부로서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족, 친척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삼촌, 사촌, 부모, 남동생, 할머니 등 큰 가족 모임은 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가족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뿌리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이런 뿌리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민족 문화에 깊은 관심으로 이어졌다. "어릴 때 '에트노스' 아동 예술학교에서 민족 무용과 장구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강사들에게서 배웠죠. 그 경험은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흥미로웠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의 아이들 또한 한민족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남편도 동포

이고 제 아이들은 동포아이들이잖아요. 딸은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배우고 있고, 큰아들은 케이팝과 한국 관련 모든 것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가 집에서 즐겨 만드는 떡볶이, 불고기, 비빔밥 등 한식은 가족들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모스크바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큰아들에게는 김치, 찐새(왕만두), 볶은 김치, 고사리 등을 통해 가득 담아 진짜 많은 양을 보냅니다. 한식을 미치도록 좋아하거든요."라며, 그녀의 딸 웨로니카 역시 "한식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대학 진학 후에도 사할린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할 정도다.

그녀가 사할린 비즈니스 현장에 전파하고 싶은 것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문화와 건강한 경쟁 정신이다.

"기업인들이 고객을 유능하게 유치하고, 유지하며,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경쟁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가져오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그녀의 인생 모토는 낙관과 믿음으로 가득하다. "이미 모든 것이 좋은데,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모든 상황을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힘은 그녀로 하여금 복잡한 행사를 기획하고, 네 아이를 키우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력이 되고 있다. 올가 신 경영인은 단순한 행사 기획자를 넘어, 그녀의 에너지와 지식으로 사할린 비즈니스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협력자이자, 스스로의 삶을 가치 있게 창조하는 한 여성이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예지나야 러시아'당의 홈스크 지부, '플로브' 요리교실 개최

홈스크 지역에서 국민 단결의 날 준비의 일환으로 우즈벡 전통 '플로브(볶음밥)' 만들기 요리교실을 열어 유익한 행사를 조성했다. 특수군사작전의 영웅들과 그들의 가족을 고려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진 가운데 이 행사를 마련했다.

플로브 요리교실 개최에 '예지나야 러시아(통합 러시아)'당의 대표들과 청년수비대 활동가들, '누르'종교단체 회원들이 참가했고, 귀빈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과 사할린주 '조국 수호자'재단의 복지업무 담당자, 카자크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예지나야 러시아'당 홈스크 지부 사무총장인 크리스티나 티모페예와는 국민 단결의 날은 러시아의 국력과 다양성을 상징한다며 "요리의 전통은 각기 다른 문화들이 서로서로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활동적인 사례이다. 플로브는 단순한 요리를 넘어 환대와 관대함의 구현이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준다."고 강조했다.

요리교실의 참가자들은 가마솥에서 페르가나 플로브 조리과정의 묘미를 익힐 뿐만 아니라 우즈벡 국민의 문화적인 유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한 잔의 차를 마시며 방문객들은 특별히 따뜻하고, 다정한 분위기 속에 만남이 이뤄지는 우즈벡의 전통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러한 행사는 사회에서 상호이해와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정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 최 측은 요리의 예술과 활발한 교제를 통해 러시아의 다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키며, 러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 В Холмском отделении партии «Единой России» проше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лова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организовали познавательную встречу —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традиционного

узбекского плова.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готовили с особым вниманием, посвятив его Героя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ьям.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астер-класс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активисты «Молодой Гвардии», а также члены религиозной группы «Нур». Среди гостей были депутаты местного Собрания, социальные координаторы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азачьего общества.

Кристина Тимофеева,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Единой России», отметила, что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символизирует мощь и разнообразие России.

«Кулинарные традиции служат ярким примером того, как различные культуры взаимно обогащаются. Плов — это не просто блюдо, а воплощение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и щедрости, способное объединять людей», — подчеркнула Кристина Тимофеева.

Участники мастер-класса не только освоили тонкости приготовления ферганского плова в казане, но 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узбекского народа. За чашкой чая гости смогли в непринужд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узбекских традициях, что придало встрече особую атмосферу тепла и дружелюбия.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укреплении чувства единства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в обществе. Организаторы через призму кулинар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живого общения смогли донести идею гордости з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ую Россию и подчеркнуть ценность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страны.

### '톱블로그' 우승자인 사할린의 블로거 야포노마쯔, 음식기념품 출시

야포노마쯔 블로거가 가족과 함께 해초로 만든 사할린 음식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개점했다.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대통령 플랫폼으로 진행된 '톱블로그' 전 러시아 경영의 우승자인 올라 스타페예와 블로거는 '야포노마쯔'로 더 알려져 있는 가운데 가족과 함께 '네와레니예 스 사할린(사할린산 특별 잼)'라는 식품명을 출시했다.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독특한 사할린의 식품들을 선보일 그녀의 상점은 11월 초에 문을 열 예정이다.

올가 스타페예와는 제 4차 '톱블로그' 경영의 '음식' 특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자신의 블로그에서 올가는 요리사인 일본인 남편 만나미 다이스케와 함께 러시아의 식재료를 활용한 일본 가정식 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경영에서 우승한 후 올가는 이 기획에 기업정신을 접목시켜 블로그 운영과 연결시키기로 했다. 그리하여 사할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할린의 맛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추억할 수 있는 음식기념품을 만들겠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탄생시켰다.

올가 스타페예와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 대통령 플랫폼의 '톱블로그' 기획에서 우승은 나에게 큰 경험이자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획을 통해 자신의 지역들에서 중요한 물품을 만들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 다른 이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사할린의 바다와 자연, 사람들과 사할린의 맛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사할린산 특별 잼' 우리 상품은 바로 우리 사할린의 특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특별 잼'상품은 해초를 주재료로 만든 음식상품의 일종으로 스타페예와의 가족이 함께 조리법을 개발하고 있다. 남편 다이스케는 다양한 맛들을 담당하고, 올가는 홍보를, 그들의 딸 루제나는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일련의 상품들은 클로포브카와 명태알 잼부터 바다 성게와 게를 넣은 독특한 잼에 이르기까지 6가지 종류의 '특별 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상품들은 시장에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할린의 상점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브랜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톱블로그' 전 러시아 기획 경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청년과 아동' 국민기획에 '러시아는 기회의 나라' 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이 기획의 목적은 현대 러시아가 추진하는 목적에 부합한 사회적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지원하는 데 있다. 이 기획 경영의 참가신청서는 공식사이트에서 접수하고 있다.

(8면에 계속)

# 사할린, 제2회 극동 동양무술축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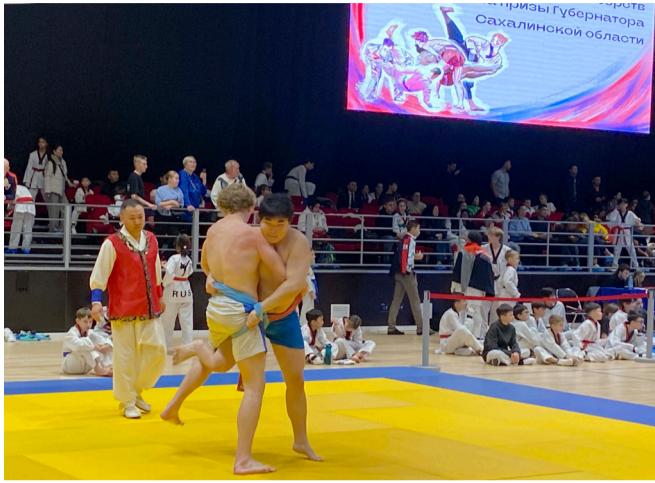
지난 11월 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주지사배 제2회 극동 동양무술축제가 열린 가운데 격투기 센터에서 행사가 진행되어 하바롭스크 변경주, 캄차트카 변경주, 연해주와 사할린 주에서 25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축제 프로그램에는 태권도(WTF), 가라데 및 한민족 전통 씨름 등 세 가지 종목이 포함됐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할린 주스포츠부 차관 스웨틀라나 호두쉬와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스포츠 대중화와 지역 간 문화교류를 위한 이러한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라데 부문에서는 바르바라 토미니, 표도르 프릴렘스키, 루슬라나 아키모와, 알렉세이 비류코브, 키라미세와, 브세워로드 마슬로, 이완 니코노브, 아르쎬프 고르바투크, 아리나 아와칸, 이고리 비류코브, 안드레이 사이토, 아르세니 라자노브, 나타리아 라제와, 키릴 림, 미론 굴라예브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태권도(WTF)에서는 로만 카추르, 제니스 공, 다니엘 치블로브, 게오르기 마트베예코, 제니스 문, 아이다 예피모와, 알렉산드르 리, 파벨 튜긴, 타티야나 위로파이, 아르쎬프 김, 알리나 최, 율리아 김, 알렉세이 마몬토브, 키릴 와가노브, 말리카 카찬, 드미트리 푸시카료브, 로만 자하로브, 다니일 세레브류호브, 이완 라디긴, 밀



라나 티모페예와, 예카테리나 비츠코와, 츠웨타나 페트로와, 빅토리아 엄, 소피아 브로들리웨츠, 웨라 쉬마코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씨름 경기에서는 누슈 메케노브, 순나톨로 오딜로브, 알렉세이 힐, 야로슬라브 젤론킨, 블라디미르 프리호즈코, 알렉산드르 코네카바, 카리나 코제브니코와, 키릴 춘 선수가 선두를 달렸다.

행사는 사할린주정부, 사할린주 스포츠준비센터, 사할린주한인협회, '토르나도' 태권도 클럽, 사할린주 씨름협회와 사할린주가라데협회, 사할린주스포츠부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 사할린주, 2025년 여름 건강증진활동 총결

사할린주 건강증진활동 결과 올 여름 자연캠핑에서 휴양한 사할린주의 학생이 46%인 2만9천 명에 달한 가운데 학생들의 휴양을 위해 9억4,900만 루블리 이상이 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름 내내 사할린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캠프 363개가 운영되었고, '차이카', '페노노예 오제로', '유빌레이니', '보스톡' 등 4개 건강증진캠프에 3,066명이 참가했다. 또한 183개의 주간 캠프가 적극 운영되었고, 46개의 근로 및 휴양캠프, 4개의 텐트캠프와 126개의 특화 전문캠프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캠프 운영으로 2만5,427명의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은 "학생 여름캠핑에서 학생들의 발전과 휴식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이번 캠프에서 우리는 각 학생들의 관심사와 필요조건을 고려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가능성의 폭을 확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했다.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는 각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올 해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7,593명을 위한 휴양과 재활건강프로그램이 조성됐다. 이 캠프에 고아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 814명, 장애아와 발달장애아 1,688명,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5,091명이 참가했다.

캠프 활동 총결에 따르면 특수군사작전으로 부모를

잃거나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재활건강캠프를 위한 229개의 캠프이용권과 지방의 주간캠프에 930개 캠프이용권이 배급되었다. 이외에도 예방치료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 545명에게 다양한 형태로 휴식과 근로 캠프이용권을 제공했다.

2025년 7월에 <사할린의 별>텐트캠프에서는 '러시아의 힘' 지역 전문 교육일정이 진행되어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세 -14세의 청소년들 37명이 참가했다.

전국 연방 아동센터와 협력의 일환으로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사할린의 학생 675명이 전 러시아 아동센터 '오케안', '오를료노크', '스메나', '알리에 파루사', 국제 캠프 '아르테크' 캠프지에서 진행되는 전문 교육일정에 참가했다. 123명의 학생들은 사회복지부로부터 여행이용권 보상을 받아 독자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휴양을 떠났고, 2025년 5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후원하고 있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샤희초르스크 자치구 500명의 학생들이 아조브해 해변 '미르'캠프에서 휴양을 했다.

사할린 지역에서 휴양 및 건강증진캠프는 연중내내 진행되어고 있으며, 매달 학생들을 사할린주 경계 밖 전 러시아 아동센터로 보내고 있고, 여름철을 비롯해 봄방학, 가을방학에도 지방에서 학생들은 휴양을 할 수 있다. 2025년11월1일 기준 휴양과 건강증진에 학생 3만5천 명이 참가하고 있어 이는 전체 학령기 학생 수의 56% 이상에 해당되며, 계획 수치인 51.8%를 넘어섰다.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 화양연화(花樣年華) / 김사인

모든 좋은 날들은 흘러가는 것 잃어버린 주홍 머리핀처럼 물러서는 저녁 바다처럼. 좋은 날들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새나가지 덧없다는 말처럼 덧없이, 속절없다는 말처럼이나 속절없이. 수염은 희끗해지고 짓궂은 시간은 눈에 내려앉아 잡아당기지. 어느덧 모든 유리창엔 먼지가 앉지 흐릿해지지. 어디서 끈을 놓친 것일까. 아무도 우리를 맞닥겨주지 않지 어느날부터. 누구도 빛나는 눈으로 바라봐주지 않지.

눈멀고 귀먹은 시간이 곧 오리니 겨울 숲처럼 더는 아무 것도 애답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리니

잘 가렴 눈물겨운 날들아.  
작은 우산 속 어깨를 걸고 꽃장화 탕탕 물장난 치며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  
철모르는 오누인 듯 살아가거라.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거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뜻하지요. 화양연화. 꽃이 필 때, 활짝 폈을 때를 우리들은 인생의 정점으로 봅니다. 사랑도 그렇지요. 젊은 시절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사랑을 나눌 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시간 참 순하게 잘도 흘러 갑니다. 영화 ‘화양연화’를 아주 노련하게 관람한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제는 김사인 시인의 시를 읊조리며 아쉬워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일찌감치 연애하다 대학 재학 중 결혼을 했으니, 제 인생의 굴곡점을 아내는 모두 알고 있을 테고, 저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둘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둘 다 영리한 건지, 그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야 할 노릇이지만, 배우자는 그 사람이 반드시 멋있거나 근사해서만 선택하고 선택당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정의 내리기 힘든 감정이기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부부가 참 잘도 사는 것만 같으면 ‘사랑’의 위대함이란 표현이 틀린 표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랄까, 좀 찝찝한 면이 있어서 그랬는지, 친구 녀석들은 제가 결혼을 아주 잘한 케이스로 얘길하는데요. 뭐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그 순간이 그렇다면 ‘화양연화’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꽃이 핀 것만 가지고 ‘화양연화’라고 부르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은 이곳저곳에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읽었던 책을 다시 읽다가 새로운 느낌으로 삶의 채색이 뒤바뀌는 느낌을 종종 받는 편인데요. 이 역시 제 눈에는 온 세상이 꽃이 핀 것만 같습니다. 결국 라캉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봐요. ‘대상’이 욕망이라면, 이에 대한 기억 역시 미세하게 왜곡이 아닌 진화로 접어들 수 있을 테니 말이지요. 말을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억이란 또 하나의 인식의 순간일 수 있을 테니. 이를테면 꽃이 피었던 순간이나 피우진 못했더라도 우리들은 기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미학적 장치로 그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삶의 어떤 순간마저 우리 인간은 상상을 통해 그 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 어렵지 않은 말을 이렇듯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꽃이 피는 순간이라기보다, 지난 시간 속, ‘꽃이 피었을 수도 있었던 순간’이 어찌면 ‘화양연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남겨진, 놓아 버렸던 그 순간, 그런 기억이야말로 ‘화양연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김사인 시인의 시는 참 쉽습니다. 읽기 편하지요.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의별 생각, 이것저것을 다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지요. 목소리를 들으면 낮고, 더듬거리는 느낌입니다만, 언어에 대해서만큼은 단단한 감각과 철학을 지니셨지요. 겨울의 도입부. 여러분의 삶이 활짝 핀 꽃 속 기억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은 분명 짧습니다만 기억은 어마어마한 차원의 영역일 수 있을 테니.”

(서울에서 허진원)

## 광복 80주년 맞아

#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 김덕선

관리번호	955990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김 덕 선	한자	金 德 宣
이명	金鶴榮 金東堧	성별	남
생년월일	(1892)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강원도 이천 伊川 塔 155		

### 공훈록

김덕선은 1920년 6월 정호섭(鄭鎬涉), 김언배(金彦培), 김재

봉(金在鳳) 등과 함께 의연대(義捐隊)를 조직하여 국내에 진입하였다. 이후 함경북도 길주군(吉州郡)·무산군(茂山郡)을 비롯하여함경남도단천군(端川郡)·풍산군(豊山郡)·신흥군(新興郡)·북청군(北靑郡)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금하고 단원 확충에 힘썼다. 7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대한신민단 산하 중국 연지현 민행거우의 참모본부 대장이 되었다. 11월에도 함경남도 풍산군과 북청군에서 무장한 채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함흥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21년 11월 2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1922년 1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11. 27, 1921. 10. 16, 10. 19, 10. 22, 1922. 6. 17)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10. 30)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2권 74~76면

###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езидент РК обещает укрепить оборону и начать диалог с СК

РК активизирует программу укрепления обор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должая усилия по возобновлению переговоров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обращаясь 4 ноября с бюджетным посланием к Национ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Он особо отметил, что «гордость народа страны будет подорвана, если Сеул продолжит полагаться на иностра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в вопросах своей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Ли Чжэ Мё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К стремится превратить свои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в «умные и сильные» с помощью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Прогресс в консультациях с США по поставкам ядерного топлива для атомных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укрепил основу дл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обороны», а тарифное соглашение с Вашингтоном, заключённое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снизило экономическую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ь, - отмет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едставив план бюджетных расходов на 2026 год в размере 728 трлн вон (508,5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н пообещал направить масштаб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отрасль ИИ. Это поможет РК войти в тройку ведущих мировых держав в сфере ИИ. Президент призвал парламентариев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обсуждении и принятии бюджета в установленный законом срок до 2 декабря.

## Оппозиция бойкотировала бюджетное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Главн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бойкотировала бюджетное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запроса группы спецпрокурора о задержании бывшего лидера их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Чху Гён Хо. Депутаты от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организовали митинг у зд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ни выступают против ходатайства о заключении Чху Гён Хо под стражу. Его обвиняют в создании препятствий для участия депутатов от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в голосовании за отмену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объявленной быв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3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Лидер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гла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он Он Сок назвал действия спецпрокурора попыткой уничтожить партию.

## Фильм Project Y получил главный приз кинофестиваля в Лондоне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Ли Хвана Project Y удостоен главного приза основного конкурса 10-го Лондо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стран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историю двух женщин, пытающихся вырваться из нищеты и втянутых в череду событий после кражи денег и золотых слитков. Жюри высоко оценило работу, которая поставила в центр повествования женскую точку зрения. Фестиваль,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с целью популяризации азиатского кино в Европе, представляет фильмы,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е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региона. В этом году на фестивале было показано 45 картин.

## Мировы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собрались в Пусане

Мировы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з РК, США, Японии, Евросоюза, Китая и Тайваня собрались в Пусане, чтобы обсудить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отрасли и пути расшир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Ежег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лидеро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рошла с 4 по 6 ноября.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ста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 крупнейш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так как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Intel, TI, Onsemi, TSMC, а также национальных ассоциаци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онференция миров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проходит с 1999 года.

## Единый госэкзамен пройдёт в РК 13 ноября

13 ноября в РК будет проведён ежегодный 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 Он состоит из пяти этапов, и его сдают учащиеся выпускных классов старших школ, а также выпускники прошлых лет, желающие поступить в вузы в 2026 год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будут открыты 1.310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пунктов. Для участия в экзаме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554.174 человека, что на 31.504 человек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кзамен длится с 8:40 до 17:45.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ратилось с просьбой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муниципальным и частным компаниям начать работу на час позже, чтобы уменьшить пробки на дорогах. Кроме того, в утренние часы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количеств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опоздания на экзамен. В период с 13:10 до 13:35, когд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тестирование по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у, будут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взлёты и посадки самолётов в аэропортах. С этой целью скорректируют расписание полётов.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т период будут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стрельбы и передвижение танков.

RKI

## Открытие крупной больницы в Пхеньяне стало символом модернизации столицы КНДР

В столице КНДР открылась Пхеньянская общая больница - один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и амбициозных проектов, реализованных по инициативе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а.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медицинский комплекс начал прием пациентов 3 ноября - спустя пять с половиной лет после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ЦТАК назвало новую больницу "медучреждением мирового класса" и отметило, что пациенты "получили лучшие услуги". На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снимках видно, что просторный вестибюль заполнен посетителями, все в медицинских масках.

По оценк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объединения, Пхеньянская общая больница по масштабу сопоставима с крупнейшими частными клиниками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ими как Samsung Medical Center, где число коек превышает две тысяч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ольницы началось в марте 2020 года, когда Ким Чен Ын лично заложил первый камень и потребовал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к октябрю - в честь 75-летия основания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Однако нехватка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пандемия COVID-19 значительно задержали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елось с постоянным вниманием со стороны руковод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Ким посетил стройплощадку, отметив, что внешний облик здания уже готов,

но оборудование еще не установлено. Во время следующего визита в сентябре он убедился, что установка медтехники 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ерсонала пр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е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6 октября лидер КНДР заявил: "Это одно из дел, о котором я мечтал больше всего и которое всегда стояло у меня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Ким Чен Ы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аибольший разрыв между городом и деревней сохраняется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Он пообещал с 2026 года ежегодно строить по 20 больниц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и уездах страны.

Визит Ким Чен Ына на строительную площадку в пригороде Пхеньяна всего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сле отъезда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эксперты расценили как сигнал о приоритетах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КНДР. В условия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трудностей власть стремится укрепить общественное доверие, демонстрируя заботу о благополучии граждан и развитии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ткрытие пхеньянской больницы -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оторое стало символом модернизации столицы и попытки показать миру, что даже под санкциями КНДР способна реализовывать крупные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В Южной Корее планируют построить атомную подлодку к концу 2030-х годов

4 но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шедшем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первые озвучило конкретные срок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ациональной атомн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Согласн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прогнозам, начало работ намечено на конец 2020-х годов, а спуск на воду первого атомохода ожидается в середине или конце 2030-х.

### Проект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уровня

Как сообщи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ресурс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инобороны Вон Чон Дэ, ре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атомной подлодки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ША официально согласились на поставки ядерного топлива для её реактора. Этот вопрос считался главным препятствием в развитии проект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десятилетий.

По словам Вона, Южная Корея уже располагает ключе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для создания атомохода - от реактора и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й до передовых решений в области судостроения. Сейчас проводится их проверка 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Если мы начнем этап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конце 2020-х годов, то сможем спустить на воду головную подлодку в середине или конце 2030-х", - от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обороны.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здание атомной подлодки -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роект", требующий не тольк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готовности, но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усилий, а также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й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баз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сформировать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ую рабочую группу (TF), которая займется комплексной координацией проекта, включая переговоры с США по топливу, подготовку нормативов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ой базы.

### Вашингтон подтверждает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Официально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ддержки последовало в тот же день в Сеуле.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ША Пит Хегсет, выступая на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Ан Гю Бэком по итогам 57-го заседания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SCM),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одобрил этот исторический шаг, и я хочу вновь подтвердить это реш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оборонных ведомств мы окажем Корею всестороннюю и ак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Хегсет уточнил, что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участвуют также Госдепартамент и министерство энергетики США, 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ашингтон намерен "плотно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действия" со всеми ведомствами.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хочет, чтобы союзники Америки были сильным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образцовый союзник.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президент поддержал стремление Сеула к более продвинутому оборонному возможностям", -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ставку топлива для атомоходов знаменует собой важный сдвиг в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литике в отношении передачи ядер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о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и "станет фактором укрепления альянса и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обеих стран".

### Новая глава в оборонной политике Сеул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роект атомной подлодки как часть стратегии укрепления морск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и усиления сдерживающего потенциала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й подводной активности КНДР.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Ан Гю Бэк,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ечь не идет о созда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Юж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участником Договора 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не будет разрабатывать собственн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аша цель - усиление оборон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 заявил он.

Хегсет,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подвод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расширение обслуживания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ых кораблей в Корею" откроет новые горизонты для двусторонней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вместные решения, принятые на уровне президентов и подтвержденные на заседании Госсовета, означают фактический старт самого амбициозного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в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цены выросли в октябре на 2,4%

Как сообщили 4 ноя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данным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цены выросли в РК в октябре на 2,4%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Уровень инфляции, который с начала года составлял порядка 2%, снизился в августе до 1,7% из-за снижения тарифов на связь компанией SK Telecom, но с сентября снова превышает 2%. Рост цен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обусловлен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подорожанием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 среднем на 3%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При этом цены на продукцию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повысились на 5,3%, на рыбную

продукцию - на 5,9%.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продукция подорожала на 1,1%. Рост цен на питание вне дома, составивший 3,0%, продолжил опережать общий уровень инфляции. Бытовые услуги подорожали на 3,4%. Базовая инфляция, не учитывающая изменения цен на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которая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по методике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составила 2,2%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Уровень инфляции, ощущаемый населением, составил 2,5%.

KBS World

##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награды победителям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пятого сезона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Среди них - крепкие семьи, выдающиеся учителя, врачи, спортсмены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лидеры молодежи и волонтеры.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рошла на большой сцене Чехов-центра.

Ежегодный областной конкурс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ся в 2020 году. Сегодня это одно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жизни региона. Главная цель – назвать людей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ми область может гордиться. В 2025 году отбор проходил по 51 номинации. В народ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21,7 тысячи человек.

- Пятый год подряд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мы подводим итоги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Отмечаем людей,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образцом в вопросах медицины, образов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дорог и много другого. Самое ценное в том, что маяками вас видят не руководители, а простые люди. И я хочу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всем вам. За сердеч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землякам, за креативные идеи, за дела. Ваш труд – это и есть подвиг,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ная номинация конкурса - «Человек года-2025». В ней победила Гульнур Миньк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держки и защиты отцовства, материнства и детства «Семейная Азбук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лен 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под ее руководством организована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поддержке будущих и уже состоявшихся родителей в рождении и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повышается квалификация сотруд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по вопросам родовспоможения. Гульнур Минькова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многолетней мамой, воспитывает с мужем пятерых детей.

- Очень приятно и неожиданно получить такую высокую награду. Ежедневно команда «Счастливой азбуки» работает с семьями на всех этапах планирования,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родов. С начала запуска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мы начали также помогать женщина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ситуации сложного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выбора из-за различных жизненных трудностей. Для нас важно узнать о проблемах будущих мам, помочь им,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ключить профиль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Все это важ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мочь маме и отцу ребенка сказать новой жизни «Да», - поделилась Гульнур Минькова.

##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лучают средств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школ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 очередной цикл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Ежегодно на его реализацию направляется свыше 3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До 2,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а одну школу. На этот раз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школьного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станут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128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чинание реализуется с 2018 год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ограммой школьного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учащихся 9-11 классов выявляют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сво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вырабатывают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их решению. Лучшие инициативы определяют голосованием сами школьники, а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выделяет средства на их реализацию.

- С помощью программы школьного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мы вовлекаем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в реальную работу по развити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ли территорий. Они уже в школьные годы получают бесценный опыт планирования, грамотного распределения задач и ресурсов. Так мы воспитываем активных и социально ответственных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обозначать проблемы, но и решать их. Уверен, в дальнейшем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станут авторами многих важных для общества инициатив и, возможно, подключатся к управлению нашим регионом,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могут предложить любые иде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воей школы и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пример, со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зон для творчества, учебы и отдыха, обустройство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размещение малых архитектурных форм, озеленение.

- Проект помогает ребятам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финансовой грамотности. Они учатся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в команде, публично представлять свои идеи, планировать долгосрочные цели и добиваться результата. Важно, что дети сами участвуют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среды вокруг себя, осваивают принцип осозн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бюджетом,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Лопатина.

С момента запуска программ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оплощены в жизнь более 1000 идей школьников.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эти цели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коло 2,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Образователь-

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олучили новые учебные классы, оборудованные спортивные зоны и помещения для рекреации,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благоустроены скверы, установленные мемориалы и памятные знаки.

Программа школьного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успешно работает и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За 8 лет здесь реализованы 65 проектов. Еще 5 прибавятся к ним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пример, в школе села Краснополье по желанию ребят обустроены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и компьютерный класс, обновлена шко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оведе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цены в актовом зал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закуплено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ресс-центра, которое позволяет ребята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здавать книги и журналы, наносить наклейки на футболки, кепки и кружки.

- Я думаю, идея создать пресс-центр в нашей школе была просто замечательной. Нам все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оставаться после уроков и в свое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издавать газеты, буклеты, печатать фотографии, - поделилась ученица школы села Краснополье Диана Марзоева.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Молодежного бюджета» в сельской школе появится и собственный театр. По задумке ребят будут приобретены ростовые и перчаточные куклы, свет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различный инвентарь, ширмы и занавес.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летней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й кампании 2025 года

Около 29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 это 46 % школьников области - этим летом провели досуг в загородных лагерях.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детского отдыха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949 млн. рублей. Таковы итоги летней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й кампан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течение ле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и 363 лагеря различных форматов. Четыре стационарных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 – «Чайка», «Лесное озеро», «Юбилейный» и «Восток» – приняли в своих стенах 3 066 детей. Помимо этого, активно работали 183 лагеря с днев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46 лагерей труда и отдыха, 4 палаточных лагеря и 126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профильных) лагерей. Благодаря их работе, отдыхом и оздоровлением было охвачено 25 427 детей.

— Летняя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 это важная часть нашей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развития и отдыха детей. В этом году мы сделали акцент на расширении спектра возможностей, предлагая разнообразные программы, учитывающие интересы и потребности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ым усилиям, мы смогли предостав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каждому ребенку полноценно отдохнуть и восстановить силы,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детям, находящ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этом году для них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7 593 места отдыха и оздоровления. Их получили 814 детей-сирот и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1 688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и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5 091 ребенок из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 Мы стремимся создать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отдыха и развития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 подчеркнула начальник лагеря «Лесное озеро», Елена Рыжкова. — В этом году был сделан акцент на туризме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здоровом образе жизни и спорте, культуре и искусстве. Наши ребята не только отдыхали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но и развивали способности в творчестве и спорте, расширяли знания о Родине, ее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е. Программа отдыха была насыщен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выезды, экскурсии, встречи со значимыми людьми. В различных конкурсах и шоу дети проявляли себя и свои таланты.

По итогам кампании 229 путевок в загородные лагеря и 930 путевок в муниципальные лагеря с дневным пребыванием были предоставлены детям, чьи родители являются участниками СВО или погибли при выполнении боевых задач. Кроме того, 545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состоящих на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м учете, были охвачены различными формами отдыха и занятости. В июле 2025 года на базе палаточного лагеря «Сахалинская звезда» прошла региональная профильная смена «Сила России», собравшая 37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11-14 лет из 9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федеральными детскими центрами страны, в период с июня по август 2025 года 675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рофильных сменах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х детских центрах «Океан», «Орленок», «Смена», «Алые паруса»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 лагере «Артек». Еще 123 ребенка отдохнули за пределами регио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лучив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путевки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 период с 31 мая по 28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500 детей из подшефной территории Шахтёр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ровели отдых в лагере «Мир» на побережье Азовского моря.

Отметим, отдых и оздоровление в загородных лагерях региона является круглогод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е детей за предел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е детские центры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ежемесячно, а отдых детей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кроме летнего периода, в весенне и осенние каникулы.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ноября 2025 года отпуском и оздоровлением охвачено около 35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56%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при плановом показателе 51,8%.

## Комфорт для людей и бизнеса: большегрузный транспорт вскоре уйдет из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общил, что летом 2026 года транзитный грузовой транспорт пойдет в объезд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явится с вводом первого этапа западного обход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остров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и профильным органам в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уже сейчас начинать проработку новых схем перевозок.

Западный обход соединит три ключевы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трассы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ведущи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Корсаков, Холмск и Оху. Открытие движения по этой дороге позволит вывести грузовики из центра города, снизить количество пробок, продлить срок службы асфальта и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воздуха. В 2026 году будет введен в строй первый этап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8,3 км. По расчет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в 2027 году в сутки по западному обходу должно проходить около 850 грузовиков. Без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все они проезжали бы по городу.

— Сегодня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транзитных груз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движется через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 портам Корсакова и Холмска и по трассе на север. С появлением западного обхода они не будут заезжать в центр город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меньше пробок, станет чище воздух. Выиграют в перспективе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а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е появятся складские мощности. Поэтому не надо будет направлять фуры в город для разгрузки, терять время и деньги в пробках. Но к предстоящим переменам нужно готовиться заранее, прорабатывать логистику,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защите пра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Коваленко добавил, что вопрос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бизнеса в сфере грузоперевозок и логистики.

— Мы готовы работать с кажд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м индивидуально. Задача сейчас – получи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бизнеса. Для этого каждый месяц губернатор и проводи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совет. В формате живого диалога власть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аходят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ных вопросов, что позволяет снизить риски и соблюсти интересы всех сторон, - сказал бизнес-омбудсмен.

В новой схеме движения большегрузов задействован Сахалинский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парк,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север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строится и крупный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торого должны сдать в 2026 году. Он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складские мощности класса А и В, а также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центр.

— Комплекс на площади в 40 гектаров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всем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и складского бизнеса.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истемы автоматического пожаротушения,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окостеллажного хранения. Нагрузка на пол – не менее 5 тонн на квадратный метр. Сахалинский логистический парк очень удобно расположен у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Это позволит резидентам эффективно осуществлять доставку товаров как внутри региона, так и за его пределы, - отмети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Юнион» Кирилл Лемешев.

Участники инвестсовета рассмотрели ряд других акту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Были озвучены итоги эк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 2025 год. Островной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добился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работ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ынке.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поставленных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составила 6 млн долларов. В списке – морепродукты, напитки,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БАДы и другая продукция, а такж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сервисы.

— В этом году 17 субъектов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четыре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ыставках: в Харбине, Цинда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а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Для 9 предприятий мы нашли партнеров из Китая, Казахстана, Вьетнама, ОАЭ. Для 13 – подготовили коммерче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Шанс выйт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ынок есть у всех. Специалисты фонда консультируют бизнес и предлаг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дела,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авел Кононец.

На инвестсовете бизнесу представили также новую отечественную платформу гибридной торговли,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форматы. В отличие от маркетплейсов с каталогами и карточками товаров, новый сервис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рганизовать живую торговлю в Сети. На сайте покупатель выбирает свой город, открывается список магазинов. В любой из них можно зайти, рассмотреть виртуальные прилавки, получить онлайн-консультацию настоящего продавца, потрогать, купи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и договориться о доставке на удобное врем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купатель «гуляет» по реально работающим магазинам, не выходя из дома.

Напомни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совет – важ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между региональной властью и бизнесом. Обращ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о любым вопросам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разбирают участники профильных рабочих групп.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е темы выносятся на заседания инвестсовет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이해찬 평통 수석부의장 취임... "흔들림없는 통일이지가 국민 뜻" 22기 자문위원 2만2천824명 위촉... 청년비율 역대 최고 30.5%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3일 남북 간 문화 차이와 동족의식 약화, 국제정세 변화에도 통일에 대한 의지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뜻을 담을 때 그렇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식에는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 민주평통사무처 관계자, 민주평통 자문위원,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 등이 참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포용·통합·연대 메시지를 거론하



국기에 경례하는 이해찬 전 총리

며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출범한 민주평통 22

기에 대해 "평화통일 담론을 선도하고 국민의 뜻을 담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취임식 이후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해 "우리는 그런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국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총 2만2천824명으로, 임기는 2027년 10월 31까지 2년이다.

국내내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천66명과 직능대표 1만5천721명으로, 해외는 137개국의

재외동포대표 4천37명으로 구성됐다.

여성과 청년(18~45세) 비율은 각각 40.0%와 30.5%였다. 특히 청년 자문위원 비율은 역대 최고라고 민주평통사무처는 설명했다.

국민공모를 거쳐 위촉한 자문위원(234명) 중 100여명은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숙의토론 진행을 돕는 활동가로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롭게 구성된 만큼 부의장은 전원이 교체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구다.

### [심층 보도]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실태 및 인구 구조적 전환에 따른 이민 정책 구조 분석

인구 절벽 위기, 외국인 인구 '통합 및 확보'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대한민국 사회, 인구 위기 타개를 위한 외국인 인력 유입의 구조적 중요성 부각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총부양비의 폭증은 국가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며, 외국인 인구 유입은 이러한 압력을 완화하고 미래 사회 활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구조적 요소로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총 2,650,783명이며, 행정안전부가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수는 2,583,626명이다.

향후 20년의 인구 추계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주배경 인구는 2042년까지 404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8.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류 외국인 자체의 규모도 같은 기간 동안 285만 명(총인구의 5.7%)으로 증가 예측된다.

내국인 노년부양비가 2042년 67.0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국내 인구 구조의 경로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이주배경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국가의 생산연령인구 및 학령인구를 보충하여 경제 및 사회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적 요소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로써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통합 및 확보' 중심으로의 전략적 이동이 시급히 요구된다.

### 비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 급증, 지방 분권화 필요

한편,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은 142곳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새롭게 추가된 15곳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농림어업과 광제조업 분야의 만성적인 지방 인력난이 외국인 노동력을 강력하게 흡인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양면성을 내재한다. 현재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정책은 실질적인 한계에 직면했다.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이 비수도권에서 급증하는 추세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정책보다는 지방 정부가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거주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세분화하여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 및 관리 방안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책 권한과 재원을 분권화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선결 과제다.

### 한국 이주민 사회의 '젠더 분화': 노동은 남성, 정주는 여성으로 양분

한국 사회의 체류 외국인 구조는 체류 자격에 따른 인구학적 분화가 뚜렷하며, 특히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20%를 차지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H-2)는 남성 77.6%, 여성 22.4%로 남성 편중 현

상이 강하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의 경우 남성이 91.7%를 차지하며, 이는 제조업, 건설업 등 남성 노동력이 주를 이루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결혼이민자(F-6)는 여성 81.5%, 남성 18.5%로 강한 여성 편중 패턴을 보인다. 결혼이민자는 장기 체류, 취업·창업 활동, 영주권 또는 귀화 신청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통합 기반을 제공하는 집단이다. 이처럼 한국의 이주 양태는 노동이주(E-9)는 남성 중심으로, 정주형 가족 이주(F-6)는 여성 중심으로 극명하게 성별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주 패턴의 분화는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이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과 같은 정책적 수요와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하며, 현재 정책 영역의 분절적 대응을 초래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남성 중심의 노동력 관리에 집중하는 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 중심의 다문화 가족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며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총괄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남성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등 특정 그룹이 사회 통합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효율성을 낳았다.

### 미등록 체류자 유입 경로 다변화: 단기 비자가 비합법 노동시장 통로로

한편, 미등록 체류자(불법 체류자)의 유입 경로에는 중요한 변화가 감지된다. 과거에는 고용허가제(E-9) 근로자의 체류 기간 초과나 사업장 이탈이 주된 경로였으나, 최근에는 이 비율이 감소 추세다. 핵심적인 문제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등 취업 목적이 아닌 단기 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미등록 체류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 방문객들이 입국 후 곧바로 국내 비합법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농어촌 및 단순 노동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력난이 제도적 통제(고용허가제) 밖에서 노동력을 흡수하는 비합법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합법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통로가 다변화되면서 이민자 관리의 사각지대 확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과 그 가족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분절된 현행 정책 체계를 재검토하고,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단기 비자 입국자들의 미등록 전환을 막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비합법 노동시장 유입 통로 차단 및 합법적 인력 충원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 외국인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 심화... '이민청' 신설 통한 정책 대전환 시급

한국 사회의 필수적 요소로 전환된 외국인 근로자(E-9, H-2 중심)의 실태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주거(기숙사 47.7%)와 고용이 고용주에게 묶여 무상 제공되는 형태(84.7%)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는 근로자의 고용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핵심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고용허가제의 특성과 결합해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부당 노동

행위 발생 시 근로자가 대항하거나 이탈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E-9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주거와 고용 계약을 분리하여 근로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노동 환경에서는 '균등 대우' 원칙과 '합리적 차별' 인정 여부를 둘러싼 임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제한적 법적 지위를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주장하며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임금 체불 등의 노동 분쟁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불안정성과 노동 조건을 분리하고, 임금 체계를 포함한 근로 기준에서 '균등 대우 원칙'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이민 및 다문화 정책은 총리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와 다수의 법률에 의해 분산 관리되는 '구조적 분절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별 목표가 충돌하고 정책 조정 및 총괄 컨트롤 기능이 약화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저숙련 노동력 확보(E-9 확대)에 집중하는 동안 여성가족부는 정주형 가족 이주민 지원에 주력하면서 총괄적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민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핵심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이민 통합 정책 컨트롤타워'(가칭 이민청)의 신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확대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통합 정책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대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거주 외국인 유형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및 관리 방안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고숙련 인력 유치로 정책 질적 제고... 유학생-영주권 연계 강화해야

인구 위기와 경제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숙련 노동력 관리(E-9, H-2)와 고숙련 인력 유치로 이민 정책의 질적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 고숙련 이주노동자 유입은 GDP 증가 효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에서 교육받은 유학생(D-계열)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전략적 목표로 제시된다. 국내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전환 경로(E-7 등)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영주권(F-5) 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정주 유인을 높이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더불어, 비합법 노동시장 유입 통로가 된 단기 비자(B-1, C-3)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비합법 취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이민 정책은 분절화된 거버넌스 통합을 통한 '이민청' 설립, E-9 근로자의 주거-고용 분리와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 그리고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고숙련 인력 유치 전략 강화라는 중장기적 정책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동포저널, 고영철 기자)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Победитель «ТопБЛОГ» блогер с Сахалина Япономать запустила бренд гастросувениров

Блогер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открывает магазин сахалинских гастросувениров на основе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Победитель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ТопБЛОГ»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блогер Ольга Стафеева, более известная как Ольга Япономать,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запустила гастробренд «НеВаренье с Сахалина». Собственный магазин островитянки, гд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уникаль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гостинцы, созданные по авторским рецептам, заработает в начале ноября. Ольга Стафеева — победитель четвертого сезона «ТопБЛОГ» в специальной номинации «Кулинария».

В своем блоге она вместе с супругом, японским шеф-поваром Маннами Дайсукэ,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японской домашней кухне, адаптируя рецепты под российские продукты. После победы в проекте сахалинка решила объединить блогинг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м. Именно так появилась идея создать гастросувенир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напоминать туристам о Сахалине не только вкусами, но и историей региона. «Победа в проекте «ТопБЛОГ»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стала для меня хорошим опытом и мотивацией двигаться дальше. Проект познакомил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делают важные вещи в своих регионах и вдохновляют своим примером. Мне всегда хотелось, чтобы о Сахалине говорили больше, — о его море, природе, людях, о его вкусах. Наш бренд «НеВаренье с Сахалина» — это способ показать, какой особенный и самобытный наш остров», — поделилась Ольга Стафеева.

Бренд «НеВаренье» — это линейка гастросувениров на основе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Семья Стафеевых разрабатывает рецепты вместе: муж Дайсукэ отвечает за вкусовую концепцию, Ольга — за продвижение, а их дочь Ружена — за операцио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Линейка бренд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шесть видов «НеВаренья» — от пасты с клоповкой и икрой минтая до необычных сочетаний с морским ежом и крабом. Продукт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на ярмарках, сахалинских маркетплейсах и в фирменном магазин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м, всероссийский проект «ТопБЛОГ» создан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Его цель — находить, обуча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авторов,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ент в диалоге с повесткой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 러시아에서 용접공의 날 기념

러시아에서 새로이 직업인의 날로 5월 5일 '용접공의 날'을 제정했다고 정부사이트에 공지된 가운데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연방 총리가 산업통상부에 새로운 직업인의 날을 달력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용접공의 날은 비공식적으로 용접공 직업단체에서 제정된 것으로 5월 마지막 금요일에 기념할 예정이다.

### В России начнут отмечать День сварщика

В России учредили новы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 День сварщика. Отмечать его будут в конце ма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аспоряжение опубликовали на сай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крепить в календаре новы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поручил Минпромторгу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Вероятнее всего, что праздновать День сварщика будут в последнюю пятницу мая, так как этот день неформально утвердился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сообществе сварщиков.

### '안텍스 지도', 도시 여가선용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시스템 도입

'안텍스 지도' 지도서비스가 도시에서 여가선용을 위한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인공지능시스템은 여러 시설들과 행사들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최대한 적합한 방법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혼자 검색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쉽게 흥미로운 장소와 행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안텍스팀의 요청에 따라 안텍스 지도서비스는 개선되었다. 이 서비스의 홍보부 대표는 지도 사용자들이 방문이나 즐길 장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텍스 지도'를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도입된 인공지능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적합한 지역을 제공하고, 경로를 구축해주며, 복잡한 질문들에 대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휴일에 자녀들을 위해 편하게 즐길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어디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난감한 질문들에 대답해준다.

### В «Яндекс Картах» внедрили систему ИИ, предлагающую пользователям варианты досуга в городе

В картографическом сервисе «Яндекс Карты» разработал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предлагающий пользователям варианты для досуга в городе. Нейросеть анализирует данные о различных заведениях и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едлагая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ие варианты. Это позволяет пользователям легко находить интересные места и события, не тратя время 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й поиск.

По заявлению команды Яндекса, в их фирменном картографическом сервисе появилось обновле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есс-службы сообщили о создании ИИ для «Яндекс Карт»,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пользователям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выбором мест для посещения и развлечений.

Этот ИИ способен предлагать подходящие локации, строить маршруты и отвечать на сложные вопросы, например: «Какие развлечения доступны для детей на выходных?» или «Где можно пройти комплекс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еклама Березка 2 ул. Украинская М2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